



“피를 나누면 세상사람 모두 형제죠”

복지법인 '불국토' 설립 10주년 맞아 자비의 헌혈행사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부산 양정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7월20일 헌혈차에서 자비의 헌혈을 하고 있다.

헌혈량 급감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혈액 수급 파동은 날로 심각해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고 혈소판 공급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7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이 참여한 백혈병 심장병 어린이 돕기 불국토 자비의 헌혈 행사가 더욱 의미를 더하는 이었다.

직원·주민 등 200여명 참가

초복이었던 7월20일 오전 10시, 양정청소년수련원 앞에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버스가 세워졌다. 양정청소년수련원, 캄넛 하우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헌혈을 위해 차례로 버스에 올랐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헌혈에 앞서 외국어행 어부, 병력 등을 기재하고 나면 피검사가 이어진다. 헌혈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신분 조회까지 마쳐야 비로소 헌혈이 가능하다. 평소 헌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두를 못 내던 직원들도 용기를 냈

는데 몸무게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여직원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페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고 헌혈을 할 수 있게 된 직원들은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헌혈대로 오른다.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인데 혈액이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요. 간염, 혈압 검사 등 건강도 점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잖아요.” 최인숙(캄넛 하우스) “장기기증까지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헌혈은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헌혈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장봉주(양정청소년수련원)

“나도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어서 기쁘다” “꼭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등 불국토 직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다.

헌혈 행사 막바지 즈음, 양정청소년수련원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헌혈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아들 현호의 손을 잡고 헌혈을 위해 달려온 조래성씨는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헌혈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참여했다”며 “아이들이 헌혈하는 것을 보고자라야 나중에 커서도 헌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될 것 같아서”라고 덧붙혔다. 헌혈을 마친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지금은 피를 뽑는 게 무섭고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새로운 피가 또 생기니까 걱정 없어. 내 피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인 현호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에 그저 웃기만 한다.

헌혈 행사는 주민과 강화를 듣는 수강생까지 동참하면서 2시간 남짓 이어졌다. 불국토 자비의 헌혈 행사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이수민씨는 “지난 4월 이후 헌혈자수가 많이 줄어들어 혈액재고량이 바닥상태다. 최소 3일치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하루 분량도 안 남아 있다.”며 “불국토의 헌혈 행사가 더욱 고맙고 값지다”고 말했다.

“생명 살리는 일 기쁘요”

“피를 나는 형제”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피를 나눠주며 보살의 길을 서원한 불국토 직원들은 이번 자비의 헌혈 행사를 계기로 혈액 수급 파동이 잠재워지길 희망했다. 만 16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헌혈이 가능하다.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실천,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불국토 자비의 헌혈 행사에는 양정청소년수련원, 영주암 자비원, 개금복지관, 용호복지관, 캄넛 하우스, 부산시청소년상담센터, 보현어린이집, 용호어린이집 직원 및 지역 주민 등 2백 여명이 동참했다. 헌혈 적합 판정을 받아 헌혈에 동참한 사람들의 헌혈증서는 모두 95장. 이 헌혈증서는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운동 본부에 전달됐다. 현대불교신문은 이 헌혈증서를 생명나눔실천회로 전달, 백혈병이나 심장병 어린이를 돕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새생명광명회 의료봉사

(사)새생명광명회(이사장 김기원은)는 7월 16일 경남 진주시 지수면 일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새생명광명회는 2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검진, 눈 시력 및 심장병 검사, 안경 나눔, 이발미용, 기침술, 상담 등의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는 경성대 이상호 교수, 송준경 교수, 원영 스님(세심정사 주지), 재경영 사장(중앙당 안경집) 우덕기 원장(현대미용전문학원), 진주산업대

탁환호 교수, 천성호 국장(청교련 진주지부)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헌혈증서 95장 ‘현대불교’에 전달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해홍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사 서정만 이사에게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겠다는 불국토 설립 이념을 펴는 작은 실천이 헌혈입니다. 피가 없어 죽는 이웃은 없어야 합니다. 불국토 전 직원, 봉사자들이 참여한 헌혈증서를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운동 본부에 전달하게 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7월22일 부산 대립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린 불국토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해홍 스님은 헌혈 증서 기탁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헌혈 증서를 전해 받는 서정만 이사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은 불교의 보시 정신을 사회에 확산하고 불자들의 나눔 실천을 이끌어내는 장구”라며 “불국토 자비의 헌혈은 보살행의 본보기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앞당기는 값

진 보살행”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1994년 정관, 해홍, 정련, 수불, 범산, 지현 스님이 주축이 돼 설립된 사단법인 불국토는 이듬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설립으로 폭넓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 98년에는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 도량을 설립해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 법인으로 자리잡았다.

지역 복지관을 통한 복지 실천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캄넛하우스, 살비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의 복지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단법인 불국토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이론적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을 운영중이며,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불교교육 연구소를 통한 어린이포교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재단법인 청소년 도량은 2001년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청소년 수련시설로 선정됐으며 2004년에는 청소년상담사 위탁받아 청소년 사회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2일 열린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불국토 10주년을 돌아보며 2004 우수 프로그램 당선자 포상금 지급과 2004 우수 프로그램 당선 자료집 발간 행사도 함께 가졌다.

나눔의 스티커 신청

충남 천안시 성정1동 부루나 데이케어 어린이집(원장 광현 스님)
저금통- 90개, 스티커- 100장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정순 보살
저금통- 10개, 스티커- 20장

대전시 용운동 박동렬 거사
저금통- 10개, 스티커- 10장

나눔의 텃밭

한마음선원 대전지원, 이경호 오용근 박정란씨 등
총 23만 190원
총 누적금액 17,895,54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훈보가 전개중인 '우리의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하십시오.

♥ 복지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복지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하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들을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

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